

2009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언어 영역 •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③	5	⑤
6	④	7	①	8	③	9	④	10	②
11	③	12	①	13	①	14	⑤	15	④
16	①	17	②	18	③	19	①	20	⑤
21	⑤	22	⑤	23	③	24	②	25	⑤
26	④	27	②	28	④	29	①	30	④
31	④	32	⑤	33	④	34	①	35	②
36	⑤	37	②	38	①	39	③	40	③
41	②	42	⑤	43	③	44	②	45	⑤
46	④	47	②	48	③	49	⑤	50	①

해설

1.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에 관한 이야기 한 편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 주변 친구들을 초대하여 자신의 집에 대해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명성에 비한다면 집 내부가 너무 초라한 것 같아.”라고 점잖게 말하였고, 또 어떤 친구는, “들어오다 보니 집의 꼬락서니가 아주 이상하더군. 이걸 집이라고 지었나?”라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것이 소크라테스 자네를 위한 집이구나! 정말 보잘것없군.”이라고 하며 집이 너무 작다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지은 집은 안에서 몇 사람이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친구들의 평가가 끝나갈 즈음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집 구경하러 오라는 자네의 연락을 받고 기뻐네. 집이 좀 누추하면 어떤가, 자네를 볼 수 있으면 되지.” 잠잠히 친구들의 말을 듣고만 있던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듣고 나서 껄껄 웃으며 “부디 내 집이 진정한 친구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이라고 외쳤습니다.

2.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는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병원체에서 병원성을 제거하여 사람 몸에 주입하면 항체나 면역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제품을 백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백신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신은 그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백신’이 있습니다. 사백신은 병원체를 죽여 병원성을 없앤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안정성이 높아 백신을 접종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하지만 제조 비용이 많이 들고 면역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면역력이 지속되는 기간도 생백신보다 짧습니다.

‘생백신’은 살아있는 병원체를 장기간 배양하여 독성

을 없애거나 아주 미약하게 만든 백신입니다. ‘생백신’은 제조 비용이 적게 들고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병원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이 낮은 것이 흠입니다.

이들과는 달리 병원체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면역 기능을 띠는 성분만을 추출하여 제조한 백신이 있습니다. ‘특이항원추출 백신’이라 불리는 이 백신은 질병을 유발하는 특정한 항원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백신 중에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백신입니다. 하지만 제조 기술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도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3. 이번에는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 생: 선생님, 이번 교지에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를 실으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기 위한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고칠 데가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선생님: 그래? 어디 보자. 오, 한의사라는 직업을 다루기로 했구나. (사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몇 가지는 고쳐야겠네. 먼저, 이 문항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거리가 먼 것 같구나. 한의사라는 직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학 생: 음, 그렇네요.

선생님: 이 문항도 문제점이 있네. 인터뷰 대상의 입장에서 뻔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항이로구나. 만일 학생인 너에게 ‘당신은 학교에서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넌 어떻게 대답하겠니?

학 생: 그렇군요. 그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뻔한 답변밖에 나올 수 없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 문항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물음이 하나로 묶여 있네. 두 물음 사이에 연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져 답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문항은 연관 지어 답변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두 개의 물음으로 나누어서 따로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학 생: 아, 그렇게 하면 좋겠군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선생님: 또 이 문항은 지나치게 직설적인 물음이 아닐까? 개인에게 민감한 내용의 질문, 그러니까 경제적 수입이나 가족 사항 등과 같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야겠지. 만약 꼭 필요한 경우라면 후회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학 생: 네,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5] 이번에는 토론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최근 극심한 적자에 시달리는 공항이 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몇 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화가 합리적인 해결책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이 국장님?

이 국장(남): 말씀하신 바대로 적자 문제가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몇몇 공항을 민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사회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항을 민간 자본에 넘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외국 자본에 공항이 매각된다면 국부 유출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 국장: 그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항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운영권만 민간이 갖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자산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선진 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공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김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교수(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공항을 맡으면 수익성 위주로 운영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면 이용객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고 결국은 공항 이용객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자: 결국 민영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가 있을까요?

김 교수: 일본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공항을 규모와 기능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하여 관리와 경영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 공항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 방식을 달리한다면 공항의 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 국장님, 김 교수님 말씀대로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면 공항을 매각하지 않고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국장: 지금 시설 확충이 필요한 공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공항에 투자를 하기는 어렵지요. 적자 폭이 큰 공항을 민영화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면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시설 확충이 필요한 공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크라테스의 집을 찾아온 친구들은 집이 좁고 멋이 없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한 친구만이 집 자체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집이 진정한 친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름뿐인 친구가 아닌 진정한 친구에 관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출제의도] 강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백신은~면역력이 지속되는 기간도 생백신보다 짧습니다.”라는 내용에서 생백신의 면역력 지속 기간이 사백신보다 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3. [출제의도] 선생님이 지정한 인터뷰 문항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지나치게 직설적인 물음이고, ②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와 거리가 먼 질문이다, ③은 인터뷰 대상의 입장에서 뻔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고, ⑤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물음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적한 내용이 아닌 인터뷰 문항은 ④이다.

4. [출제의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공항을 민간 자본에 넘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외국 자본에 공항이 매각된다면 국부 유출 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여 공항을 민영화했을 때 국가 자신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은 김 교수가 아니라 사회자이다.

5. [출제의도] 계획에 따른 토론 진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사회자는 ‘공항을 민영화해야 하는가’라는 핵심 쟁점을 제시하며, 민영화가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라는 예상 반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고 있다. 또한 교수의 의견을 요약·정리하면서 교수에게 민영화의 대안이 될 만한 외국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연상한 의미를 주제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연상한 ‘답아 가기’와 그것을 구체화한 내용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친구의 생각과 입장을 인정한다는 것은 좋은 자세일 수 있으나, 친구 사이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답아 가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답아 가기’서는 친구끼리 서로 동화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에서는 ‘섬’을 의인화하고 있으며, 첫 행에서는 대조와 대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둘째 행에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소중한 우리의 섬’이라고 하여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에서는 의인화한 표현이 없고, ③에서는 대조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에서는 대조와 대구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고, ⑤에서는 대조의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8. [출제의도] 개요를 수정하고 적절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 ‘국제표준 제정 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 부족’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II-1. 국제표준 획득의 필요성’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다’의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다’가 자립성이 있는 단어와 결합한다고 해서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주어의 생략 여부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자립성이 있는 단어와의 결합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ㄴ의 ‘내가 먼저이다’에서 자립성이 있는 단어 ‘먼저’에 ‘이다’가

결합되었지만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 1은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고, 3-(2)의 자료는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기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두 자료에서 ‘민간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끌어 낼 만한 근거는 없다.

[오답풀이] ⑤ 2-(2)의 자료에서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의 혼선이나 중복이 있다’는 내용과 3-(2)의 자료에서 ‘보건 복지 가족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1.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㉔ 문장에서 주어진 ‘유럽의 과학자들은’이므로 ‘확인되었다’라는 서술어가 주어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주어와 호응할 수 있는 서술어는 ‘확인된 것이다’가 아니라 ‘확인하였다’이다.

12. [출제의도] 문맥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은 어떤 일을 버젓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반듯하게’가 아니라 ‘변듯하게’를 써야 한다.

[13-18] 시가 복합

(가) 출전 :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개관 : 이 시는 고국을 떠나 시베리아 등지로 떠돌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 체험이 담긴 작품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의 아버지도 우라지오 등지를 떠돌았는데, ‘나’가 아버지처럼 우라지오 등지를 떠돌게 되어 보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짐을 드러내고 있다. 험겨웠던 지난날의 삶을 땀땀하게 여기지만 과거를 회상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젖는 ‘나’의 모습에는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의 실상이 반영되어 있다.

(나) 출전 : 기형도, ‘바람의 집-겨울판화1’

개관 : 기형도의 시에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이고 암울한 모습을 그린 것이 많은데, 이 작품도 그러하다. 이 시는 판화처럼 각인되어 성인이 된 지금에도 지워지지 않는 겨울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조차도 화자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다) 출전 : 이신의, ‘단가(短歌)’

개관 : 제시된 부분은 이신의(李愼儀, 1551~1627)가 유배지에서의 생활과 심정을 담아낸 <단가(短歌)> 6수의 연시조 중 첫째 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수이다. 그는 광해군 9년(1617)년 인목대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함경도의 회령으로 유배되어 6년에 걸쳐 유배 생활을 하는데, 그때의 심정이 이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도 비슷한

주제의 다른 고전시가와 마찬가지로 자연물에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어머니’가 ‘누이’에게 ‘마우재 말’을 들려 주셨던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년 시절’ ‘어머니’와 함께 보내던 동지의 밤을 떠올리며 어린 시절에 느꼈던 불안과 공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즉 (가)와 (나) 두 작품은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다)의 ‘남산(南山)의 많던 솔이 어디로 가단 말고 / 난 후(亂後) 도끼가 그대로 날렐시고’에서는 화자를 ‘솔’에 빗대고 있으며, ‘난 후’에 인목대비 사건으로 많은 선비들이 화를 당한 상황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14.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연에서 ‘우라지오의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는 표현은 화자가 놓인 처지를 드러내는 구절이다. 화자가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화자가 지닌 신념과는 무관한 구절이다.

15.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의 어머니가 ‘종잇장 같은 내 배’ 즉 화자의 배를 쓸어내리는 행위는 치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어머니의 모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듯 어머니의 모성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부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부성의 부재는 작품 전반에 그대로 유지된다.

16. [출제의도] 유사한 소재의 기능을 변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화자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서 떠올린 이미지이다. 뱃비둘기는 새처럼 날아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환기한다. ㉕은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서 느끼는 마음 즉 시름을 환기한다. ㉖은 유배지에 묶여 있는 화자와는 달리 하늘을 날고 있다. 그러한 제비를 보며 화자는 유배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한숨 겨워한다.

[오답풀이] ④ ㉑과 ㉒이 화자에게 긍정적 소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표상하지는 않는다.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쓸쓸한 마음은 정서이지 가치가 아니다.

17.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우로’는 남산에 있다 사라진 ‘솔’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남산에 많던 솔이 사라진 것을 중장의 ‘도끼가 그대로 날렐시고’와 연관 지어 보면, 그것이 도끼에 베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술을 다시 나타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로는, 술을 남산에 있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이다. 이를 <보기>와 연관 지어 보면 유배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이 점에서 우로는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지향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바람'이라는 무생물을 의지를 지닌 생물처럼 '문풍지를 더듬'는다고 표현하여, 화자가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였던 '동지의 밤'의 분위기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립적 관계로 볼 수 있는 시어는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삽살개'가 짓는 청각적 이미지와 '눈포래에 얼어붙'는다고 하는 시각 또는 촉각적 이미지가 '선달 그림'의 분위기를 잘 그려주고 있다. ④ '은빛 금숙'이 갖는 차가운 느낌 때문에 '서리'가 갖는 의미가 선명해졌다.

[19~22] 현대소설

<출전> 한수산, '타인의 얼굴'

개관 : 스승의 부고를 들은 화자가 스승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인간의 삶과 죽음, 인간의 자아에 대해 성찰한다는 내용이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선생님의 만남에 대한 회상, 집을 나와 거리를 걷는 인물('그'로 표현된 '나')의 내면 등 내면 의식 묘사가 중심이 되고 있다.

[오답풀이] ⑤ '나'의 체험을 중심으로 내면 의식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20. [출제의도] 서사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회상 1'이 끝나는 장면은 비행기가 예약되지 않는다는 아내의 말 직전이다. 황 교수보다 자신이 일찍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최 교수의 말은 회상 2가 회상1로 이어지는 부분이며, 아내의 말로 인해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오답풀이] ④ 병문안을 갔을 때 죽음에 직면해 있는 모습은 선생님의 옛 모습을 회상하는 계기가 된다.

21.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병든 자아와 정상적인 자아가 아냐. 수없이 많은 내가 내 속에 있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며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자아와 싸웠던가."와 같은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선생님의 죽음을 통해 존재 자체가 허무하며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자신 속에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는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다른 인물, 또는 다른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③ 비가 모래알같이 뿌려대는 주택과 거리는 황량한 사막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이 '아무도 살아 있지 않다'는 생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사막'으로 묘사된 배경은 화자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메마른 발, 여윈 발'은 병마와 싸우는 선생님의 육신을 감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친분이 있는 황 교수에 대해 원망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에도, ㉠의 앓은 자세를 바꾸는 행동이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3~26] 인문

<출전> 강영안, '텍스트와 철학'

개관 : 문자와 글쓰기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사유를 많은 글로 써서 남긴 플라톤을 통해, 철학과 텍스트의 긴장 관계, 철학적 사유에서 문자와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살피고 있는 글이다.

23. [출제의도] 논의 전개 과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쓰이는 철학자들 중 쓰기와 읽기에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 플라톤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 다음, 플라톤이 문자와 텍스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앓, 자신 현존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런 다음 심각한 문제에 관해 쓴 글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정작 이러한 말을 글로 써서 남긴 플라톤의 모순된 태도에 대해 마지막 문단에서 해석하고 있다. "어떤 철학자보다도 치밀하게 다듬어진 저작들을 남겼다."라는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글쓰이의 평가이지 플라톤 당대의 평가가 아니다.

24. [출제의도] 글을 다른 작품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나'가 '너'를 소망하는 동시에 '너'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긴장 관계가 나타나 있다. 이는 철학이 텍스트에 의존하면서도 텍스트를 초월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때 글자가 '내가 나의 육체를 파기'하고 그 폐허 위에 '건고한 글자의 집을 짓'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톤이 말하는 '자기 현존'은 앓의 주제와 대상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는 '생생하고 혼이 깃든 말'의 복사, 즉 모방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내가 나의 육체를 파기'하는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자기 현존'과 관련이 없다.

25. [출제의도]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 글쓰이는 철학과 사유는 문자와 텍스트를 통해 지탱되고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텍스트를 통해서만, 텍스트를 초월하여 현실과 진리의 문제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레비나스도 책이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보게 하여 삶의 본질에

접근하게 한다고 하면서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반면 나머지 답지에서는 문자나 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26. [출제의도] 조사의 쓰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로'는 텍스트를 만드는 수단이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어떤 일의 수단·도구'를 나타낸다. ㉡에서 같은 과일을 자르는 수단이나 도구가 된다.

[오답풀이] ①, ②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 ③ 변화의 결과.

[27~29] 예술

<출전> 오희숙 외,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

개관 : 음악의 가치 판단에 대한 두 견해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에게브레히트는 감성적 판단과 인식적 판단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둘의 관계와 본질을 해명하였으며, 달하우스는 주관과 객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진정한 미학적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탐색하였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 2 문단에서 에게브레히트의 견해가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감성적 판단과 인식적 판단은 무엇인가, 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좋은 음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베토벤의 '영웅'이 당당함을 지니고 있다고 느낀다는 감상인데, 왜 당당함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이론적 해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인식적 판단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식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글의 핵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은 무엇인가라는, 음악에 대한 미적 판단이나 평가와 관련하여 에게브레히트와 달하우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둘의 견해를 통해 미적 판단이나 평가가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30~33] 사회

<출전> 로버트 쿠퍼 외(김종인 역), '법경제학'

개관 : 경제학적 원리가 법과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교섭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 글이다.

30.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에 따르면 거래 비용은 교섭을 위해 드는 비용을 총칭하는 말이다. 외적 개입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 비용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자료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거래 비용의 역치는 교섭이 가능한 거래 비용의 최대치를 의미한다. 즉,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많이 들면 사적 교섭이 불가능하여 외적 개입이 필요하고,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거래 비용이 적게 들면 사적 교섭이 가능하여 외적 개입이 불필요하다.

<‘갑’의 경우>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작은 구간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 : A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큰 구간 (=외적 개입이 필요한 구간) : B, C

<‘을’의 경우>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작은 구간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 : A, B
- 거래 비용의 역치보다 큰 구간 (=외적 개입이 필요한 구간) : C

위의 내용으로 보아 A 구간은 ‘갑’과 ‘을’ 모두에게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이다. 또 C 구간은 ‘갑’과 ‘을’에게 모두 외적 개입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런데 B 구간은, ‘갑’에게는 외적 개입이 필요하고, ‘을’에게는 외적 개입이 불필요한 구간이다. 따라서 ‘갑’과 ‘을’이 동일한 의견을 보일 부분은 A와 C이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목제한제’는 목장주가 울타리를 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방목제한제’의 규정에 따르면 목장주는 16만 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그는 이 법 규정에 의지하지 않고 교섭을 선택하여 비용을 13만 원으로 줄였다. 따라서 목장주가 교섭보다 법적 강제를 선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③ ‘규범적 흡스의 정리’는 손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부가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비용이 10만 원 드는 것)이 목장주가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비용이 16만 원이 드는 것)보다 사회적 손실이 적다. 따라서 규범적 흡스의 정리에 따르면 목장주가 목장 주위에 울타리를 치게 하는 것(방목제한제)보다 농부가 옥수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치도록 법을 구성할 것이다. ④ 옥수수 밭이 목장 옆에 있어서 옥수수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손해를 입는 상황이다. 이는 의도성이 없음에도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부정적 외부성’에 해당한다.

33. [출제의도] 어휘를 의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의 경우는 ‘여러 회사 중 우리 회사가 뽑힌 상황’이므로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이라는 뜻을 지닌 ‘선정(選定)’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 ‘설정(設定)’은 ‘새로 만들어 정해 둬.(상황 설정, 목표 설정 등)’ 또는 ‘제한 물건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위.(담보 설정)’ 등의 의미로 쓰인다.

[34~36] 회곡

<출전> 이강백, ‘비용사용’

개관 : 평생토록 남에게 인정사정없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살던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34. [출제의도] 주제의식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옹고집’은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다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오답풀이] ⑤ 이 작품에서 ‘십장생도’의 십장생은 열명의 ‘신선들’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신선들’은 ‘옹고집’에게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새 길’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선들’의 마지막 대사에 나타난 세계는 모든 것이 충만한 세계로 ‘옹고집’이 걸어갈 ‘새 길’의 지향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서 보듯이 ‘옹고집’을 소유에 사로잡힌 현대인들로 본다면, ‘십장생도’는 소유욕에 사로잡힌 현대인에게 ‘새 길’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35. [출제의도] 연극적 장치의 극중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 속에서 땀을 도는 행위는 ‘옹고집’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연극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작품을 무대 공연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십장생도’를 바라볼 때 ‘옹고집’은 모든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동시에 ‘새 길’로 상징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적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조명은 ‘옹고집’의 표정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비추어야 한다. 신선들은 그림자로 비춰지므로 표정보다는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답풀이] ① 모든 것을 잃고 괴로워하는 중년기의 ‘옹고집’의 처지는 삭막하고 추운 계절인 겨울과 조응한다. 만물이 소멸하는 계절로서의 겨울이 모든 것을 잃은 채 괴로워하는 ‘옹고집’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7~40] 고전소설

<출전> 김소행, ‘삼한습유’

개관 : 1814년에 지어진 한문 장편 소설로, 작가 김소행이 조선 숙종 때 실존했던 향량이라는 평민 여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작품이다. 실제 이야기는 경상도 선산에 살던 향량이 남편에게서 버림 받은 후 개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자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는 비극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향량의 이야기는 그녀가 죽으면서 불렀다는 <산유화(山有花)>라는 곡조와 함께 민간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특히 그 일이 발생했던 당시 선산의 부사였던 조구상에 의해 입

전(立傳)되어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받기에 이르렀다. 작품은 크게 현실에서 향량의 결혼과 죽음, 향량의 환생에 대한 천상에서의 토론(1), 천군과 마군과의 전쟁(2), 삼국 통일을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3)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향량이 환생하여 효렴과 인연을 맺고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의 열녀 이데올로기에 교묘하게 도전하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향량은 자신이 ‘이대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혼과 형체를 돌이켜 인간 세상에 새롭게 다시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후토 부인에게 아뢰고 있다.

[오답풀이] ③ 향량은 현재 모습 그대로 환생한다면 의로운 열녀라는 정려와 포상은 사람들을 속인 것이 되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38. [출제의도] 삽입 시가의 의미와 표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바다는 넓고 산은 높는데 훗날을 기약하니/ 꽃다운 자태는 다시 오지 않아 청춘을 원망하네’로 미루어 볼 때, 효렴은 향량이 떠나간 후 다시 오지 않을까 한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다는 넓고 산은 높음’은 향량과의 인연이 과연 맺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것이지, 향량이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④ ‘그대 마음 해와 달처럼 변함없음을 아니’에서 ‘그대’는 효렴이다. 그 효렴의 마음을 ‘해와 달’에 빗대어 변함없다고 하여 효렴에 대한 굳은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향량은 ‘이대로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죽었다 다시 살아나 옛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이 되고(예상되는 부정적 상황),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예상되는 결과)고 말하고 있다. 또 ‘선성의 덕이 지극하고 지극하다’, ‘자비를 크게 더해서’ 등에서 후토 부인의 덕을 드러내며 인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배경 지식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향량이 후토 부인에게 말한 내용으로 미루어, 향량이 직접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할 합당한 이유를 밝힌 것은 맞다. 그러나 비현실적 환상이 교훈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내용은 위 글과 <보기>에서 확인할 수 없다.

[41~43] 기술

<출전> 이창영, ‘과학으로 세상보기’

개관 : 이 글은 정전기의 원리가 복사기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정전기 현상을 소개한

후에 그 정전기 현상이 복사기의 구체적 복사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단락별로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이 아니라 물질의 전자 이동의 측면에서만 설명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을 때 빗에 머리카락이 달라붙었다는 것은 빗과 머리카락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각각의 머리카락들은 모두 빗에 달라붙으므로 각각의 머리카락들에는 같은 전하가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대전된 물체에는 같은 전하를 띤 물체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를 띤 물체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므로 머리카락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오답풀이] ① (나)에 의하면 두 물체를 마찰하면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한다. ② 빗과 머리카락이 마찰로 정전기를 띠 때, 만약 빗이 음전하를 띤다면 머리카락의 전자가 이동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찰 전의 빗과 ㄴ의 빗은 전하의 양에 차이가 있다.

4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라)에서 원통형 드럼 표면은 양전하로 대전되어 있는데, 빗이 닿는 부분은 드럼 내부의 음전하와 중화되어 전하를 띠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드럼 표면에서 'A'라는 글씨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반사된 빛을 받게 된다. 따라서 'A'라는 글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양전하 상태에서 음전하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로 바뀐다.

[44~46] 언어

<출전> 박영순, '한국어 의미론'

개관 : 그동안 언어 현상은 주로 양분적 방법에 의해 기술되어 왔다. 글쓰이는 양분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한 후, 국어의 '요청성'이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언어 현상이 정도적 방법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개괄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의 1문단에서는 야콥슨이 도입한 양분적 방법의 한계, 2문단과 3문단에서는 범주화된 문형과 그 의미 자질이 불일치하는 사례, 4문단에서는 여러 가지 문형에서 나타나는 요청성의 정도 차이, 5문단에서는 국어에서 정도성의 분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언어 현상이 다루어지고 있다. 명령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자질은 이 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45.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의문문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문형에 나타난 의미 자질이나 그 정도성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의 첫 번째 말은 할 일을 잘 하라는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지만, 아버지의 두 번째 말은 용돈의 액수를 묻는 의문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이지만, 아버지의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을 대비한다고 하여, 요청성의 의미 자질이 지배적인 문장도 그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46. [출제의도] 핵심 정보와 관련된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의 사례는 양분적 방법을 전제로 하여 사동문과 피동문이 만들어지는 방식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도적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은 국어의 언어 현상 중 반의성의 정도를, ②는 동의성의 정도를, ③은 의문성의 정도를 다루고 있고, ⑤는 양분되어 있는 격조사나 보조사의 기능을 정도성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47~50] 과학

<출전> 마이클 길렌, '무한으로 향하는 다리'

개관 : 이 글은 차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유클리드 이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세계는 계속 삼차원으로 인식되었고, 데카르트는 추상적 수치를 도입하여 차원을 정의하고 사차원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데카르트의 생각을 활용하여 리만은 0차원에서 무한대의 차원까지 기술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이런 리만 덕분에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사차원의 다양체라는 결론을 내렸음을 서술하고 있다.

47. [출제의도] 글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차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즉, 유클리드에서 데카르트, 리만에 이르기까지의 차원에 대한 인식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48.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직선은 전형적인 일차원적 산물이다. 직선은 길이, 폭, 깊이 중 '길이'라는 단 하나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선을 두 점으로 이루어진 이차원적 사물로 보았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49. [출제의도] 핵심적인 정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리만은 감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만 수학적 차원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논리적으로 개념적 공간을 언급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 결과 데카르트의 좌표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0차원에서 무한대의 차원까지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점에서 리만은 감지할 수 있는 공간의 차원을 개념적 공간으로 해방시켰다고 할 수 있다.

50.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차원에 대한 정의를 자유롭게 만든 리만의 덕택에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가 사차원의 다양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고려하면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발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모태'가 된다. 모태는 사물의 발생·발전의 근거가 되는 토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풀이] '귀감'은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모범, '표본'은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 '척도'는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이란 의미이다.